

비전 성남

Vision Seongnam

10

2012년 9월 25일
통권 제207호



스마트폰으로 비전성남 보기

- 아이폰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검색 후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성남시정 보기

- 성남시 모바일 홈페이지
<http://m.seongnam.go.kr>
- 스마트폰에서 '성남시청' 앱 다운 받기

발행처 성남시 | 편집처 공보관

주 소 우)462-7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콜센터 1577-3100

홈페이지 <http://snvision.seongnam.go.kr>

▶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은 월1회(25일경) 발행됩니다.
구독신청하시면 무료로 집까지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무료구독신청 031-729-2075~6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행복에 투자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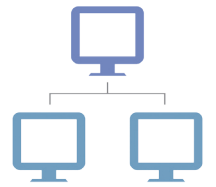
‘독수리 오형제’가 우리의 행복... 이재명 시장 축하 방문

성남에도 일명 ‘독수리 오형제’가 탄생했다. 지난 8월 김하균(44)·김미양(41) 씨(분당구 운중동) 부부는 아들 쌍둥이를 출산해 5형제 부모가 됐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9월 17일 김씨 부부 집을 찾아 성남시청 아이사랑놀이터 이용 및 장난감 무료 대여 회원권을 전달했다.

김씨 부부는 슬하에 13살, 11살, 7살과 생후 1개월째인 쌍둥이까지 아들 5형제를 두고 있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 행복 도시, 성남’답게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취학 전 까지 월 10만원의 자녀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또 다자녀사랑안심보험 지원, 여성회관 수강료 월 1만원 감면, 산 모도우미 지원,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날 다둥이가족과 이재명 시장은 이번 추석 명절엔 쌍둥이 탄생만큼 특별한 기쁨과 행복이 100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하길 소망했다.



와우~ 날마다 좋아져요! ‘성남 스타일’ 광속(光速) 소통



최근 트위터 1만 팔로워를 넘어선 ‘SNS 전도사’

성남시민의 진정한 의사를
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
이 제 역할입니다.
시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
한 SNS를 이용하면 민원처
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SNS 실시간 시민 불편 해결

시민소통관제 운영으로 최근 시민에게 접수받은
훼손 도로 복구, 수해 복구, 보도블록 정비, 불법주정
차,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각종 민원을 받 빠르게 해
결했다. 기존 민원접수 절차인 부서전달, 부서장 결재
등 행정처리 시간을 생략해 1~2주일 걸리던 민원을
단 하루 만에 처리해, 시민 만족도가 폭발적이다.

김지호(39·운중동 거주) 씨는 개인블로그를 통해
“출근길(8월 23일)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운중동 시민
소통관에게 집 주변 도로가 파손됐다고 트위터를 보냈
는데, 2시간이 채 안 돼서 분당구 도로과 시민소통관
(유영환)으로부터 오늘 중으로 도로보수를 완료할 예
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퇴근길에 확인해보니 도로
보수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있었다”고 ‘성남시 시민
소통관제’ 트위터 민원체험기를 말했다.

또 “운중동 상산운교 도로 파손 민원이 12시간 만
에 모두 완료된 것도 놀라운데 다음날 이재명 성남시
장의 트위터 타임라인을 확인해보니 내가 올린 감사
글과 사진을 리트윗 해놓았더라”면서 “과거 소통이
잘 안 돼서 집단민원을 많이 받았던 성남시를 생각하
면 그 변화가 크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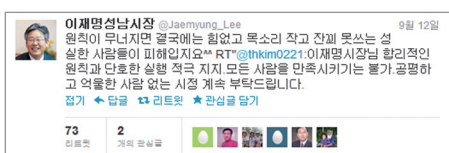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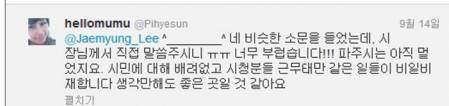
이처럼 발 빠른 민원처리하는 성남시 공식 트위터나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공무
원의 개인 트위터 등 다양한 통로로 실시간 이뤄지고
있다. 시민소통관 교육에 이어 9월 10일에는 우수 시
민소통관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최신 흐름에 맞게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성남시는 시민소통관제를 조기 정
착시켜 지역 구석구석을 살펴나가고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시민소통 3.0시대’를 열어나갈 방침이다.

공보관실 031-729-2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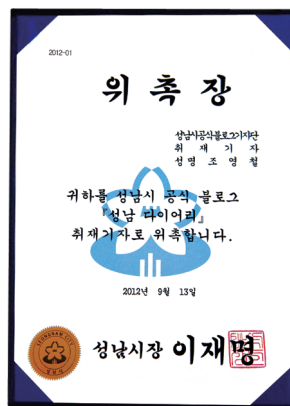
· SNS로 소통해요

성남시 트위터 : <http://twitter.com/seongnamcity>
성남시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seongnamcity>
성남시 블로그 : <http://www.seongnamdiary.com>
성남시청 모바일 홈페이지 : <http://m.seongnam.go.kr>



성남시 트위터 민원 해결이 광속도로 빨라지는 등 앞서가는 SNS 운영으로 ‘성남 스타일’ 소통 행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트위터, 페이스북)로 시민소통을 확산시켜 나가는 가운데 8월 1일부터 시민소통관제를 운영, 빠르고 간편하게 시민 민원을 풀어주는 현장행정을 펴고 있다. 부서별 1명씩 총 135명의 ‘시민 소통관’을 지정, 시 공식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로 접수된 민원을 실시간 답변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한다.



시민 무한감동, ‘친절’이 비결

시는 교육과 토론,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배가하고, 친절마인드를 강화해 시민과의 의사소통을 한층 원활히 할 계획이다.

지난 9월 4일에는 월례조회 실시 후 참석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향상교육을 가졌다.

시민소통관 135명도 함께 참여,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날로 변해가는 민원욕구에 맞춰 품격있는 친절행정 서비스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여권과 직원이 시민의 민원처리를 돕고 있다.

올 10월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향상 및 전문성 배양 직무교육, 11월에는 전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맞춤형 친절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 ‘청렴’과 ‘친절’이 몸에 배어 나오도록 해 시민 행복을 위한 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최단기간인 3일 만에 여권을 발급하는 여권민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 등도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 처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여권과 031-729-2372



시청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벼룩시장

시민 참여 제도 ‘활성화’

성남시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돼, 시민과의 소통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9월 4~14일 소속 공무원과 소관 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시민이 참여하는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앞서 8월 한 달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점 투자부문에 대한 시민 선호도,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지역 현안사업 등 행정의 전 분야에 대해 시민의견도 받았다.



시민으로 구성된 시정모니터

시민의견과 정책토론 내용은 부서별로 검토해 시책으로 반영 확정되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간부공무원의 현장행정을 비롯해 시민참여예산제, 시정모니터, 일일 명예시장, 블로그기자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강화해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정책기획과 031-729-2233, 자치행정과 031-729-2284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친숙한 ‘시민 사랑방’ 성남시청사

기존 호화청사로 주목받던 성남시청사가 민선5기 들어 관광 견학, 어린이육아, 휴식 공간 등 시민과 친숙한 소통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시청 하늘복카페

시청사는 민원처리 외에도 각종 회의실(1~3층), 하늘복카페(9층), 성남시 육아지원 아이사랑놀이터(9층), 체력단련실(4층), 종합홍보관(2층) 등을 시민에게 개방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연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청사에 오면 정신건강센터(8층)를 비롯한 수정구 방문보건센터, 눈건강센터(9층)도 위치해 있어 시청사에서 건강을 체크해보는 기회도 만날 수 있다.

시청 광장은 사회복지박람회, 문화예술제, 어린이 벼룩시장 등 각종 공연·행사의 메카로, 주변 시청 공원은 산책로로, 시청사는 어느새 시민에게 친숙한 ‘1호 공간’이 됐다.

이제 시청사가 시민이 주인돼 편하게 드나드는 시 랜드마크가 된 만큼, 시 행정 또한 시민에게 이해받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늘도 ‘성남 스타일’ 행정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

행정지원과 031-729-2187



시청광장에서 문화예술행사

10월 성남에서 **樂** & **樂**

제39주년 성남시민의 날... '꿈과 희망이 있는 성남'

오는 10월 8일은 성남시가 1973년 시 승격을 기념해 성남시 조례로 제정한 '성남시민의 날'. 100만 시민이 주인이 돼 함께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마련돼 시민의날을 축하할 예정이다.

10월 8일 성남시민의날 기념행사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과 애乡심을 고취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제39주년 성남시민의날 기념행사가 10월 8일 오전 10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

100만 시민과 함께 성남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시정을 구현코자 열리는 이날 행사의 주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성남'이다. 이는 2011년 '희망을 키우는 성남'이 성장해 꿈과 희망을 품에 안은 성남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2011년 가을 패밀리락 걷기대회

식전행사로는 행사 참가자가 기념식의 주인공이 되는 콘셉트를 담은 퍼포먼스로 성남시 다큐 동영상 상영, 특수영상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라이브 인터랙티브 공연(혼성 4인조 아카펠라 '아카시아'), 소통을 상징하는 라이브 모듬북 연주가 있다.

이어서 성남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일반시민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을 활용한 역동적인 연출과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모범시민상, 경기도민상, 성남시문화상이 수여된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729-2284

성남시문화상
수상자

홈페이지



10월 8~14일 제6회 사랑방클럽 축제

시민 자생 문화예술 동아리 네트워크인 사랑방클럽은 시민이 기획하고 창조해가는 축제를 '탄천 아리랑'을 주제로 10월 8~14일 7일간 성남아트센터와 야탑역광장, 중앙공원 등 성남시 일원에서 연다.

성남문화재단 031-783-8000



■ 행사일정

구 분	일시 / 장소	일시 / 장소	내 용
개막행사 '상징물제작 & 축하공연'		10.8(월) 17:00~18:00 성남아트센터 춤의 광장	• 축제 개막식 • 전시장 관람 및 야외행사 참여
사랑방 전시클럽	"전문가를 만나다" 전시 워크숍	8월~10월 총8회 컨퍼런스홀 등	• 지역의 시민문화예술이 축제에 만나는 공공미술 • 장르별 조형물 제작 작업 실제
	사랑방 클럽展	10.8(월)~10.14(일) 미술관 본관 & 특별전시장	• 사랑방문화클럽 전시클럽의 전시
사랑방 특별공연	"전문가를 만나다" 공연 워크숍	8월~10월 총3회 컨퍼런스홀 & 오페라하우스	• 사랑방문화클럽원과 시민이 만드는 대공연
	오페라하우스 특별공연	10.13(토) 17:00~18:30 오페라하우스	
전국시민문화클럽 한마당		10.13(토) 13:00~16:00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야탑역광장	• 사랑방문화클럽을 포함한 성남과 전국의 시민문화 예술클럽 초청 공연과 상호 교류
문화나눔장터		10.8(월)~10.13(토) 14:30~19:30 i-PLAZA 옆 광장	• 예술장터 운영 : 문화통화를 활용 한 판매와 교환

아트센터 개관 7주년 기념공연 '백조의 호수'

- 일시 : 10월 19일(금) 오후 8시, 10월 20일(토) 오후 3시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티켓 : VIP 10만원, R 7만원, S 5만원, A 3만원, B 1만원
- ※ 2012년 6월 중 티켓 오픈!!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





추가사진



동별 시민체육대회 일정

시민체육대회 등 시민 행사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동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체육대회가 각 동별로 10월 중 개최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대회 참가는 시청 체육진흥과(031-729-3021~4)나 체육회(031-721-4801~2),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위 QR코드 참조).

시청 체육진흥과 031-729-3021

또 수정술꽃축제와 분당 한마음축제에 이어, 중원구민의 마음을 모은 제8회 중원한마당 축제도 10월 13일(토) 오전 10시 남한산성 놀이마당과 다목적운동장에서 음악축제, 동별 노래자랑 및 주민센터 작품발표, 초청가수 공연, 건강체험부스, 체험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31-729-6271



특강 '왕릉이야기, 조선 왕릉의 비밀'

재능나눔 역사 특강 '백전백승 송내관을 잡아라!'

지난 7월 24일 재능나눔(기부)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극으로 보는 재미있는 궁궐이야기' 특강에 이어 시는 두 번째 재능나눔 특강으로 문화의달 10월 조선 500년사의 왕들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일시 : 10.12(금) 오후 7시
- 장소 : 성남시청 온누리실(1층)
- 대상 : 성남시민(부모 동반 초등학교 이상) 당일 선착순 600명
- 강사 : 송용진(역사전문가, 궁궐지킴이)

성남시청 하늘북카페 031-729-4980~1

잠깐! 성남시는요~



■ 성남시의 유래

‘성남’은 말 그대로 성의 남쪽, 곧 남한산성의 남쪽을 뜻하는 이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성남은 남한산성의 남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성남을 예전에는 ‘성나미’로도 불렀다고 하며, 이를 표기할 때 ‘성남(城南)’으로 썼다고 한다.

‘성남’이란 지명은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광주목 누정조에 이문형(李文炯)이 쓴 「암구정기(狎鷗亭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성남’이라는 지명은 위의 기록과 유상운(柳尙運)(1636~1707)의 “7월에 성남(城南) 옛 집에 갔다가”라고 한, 묘갈명(墓碣銘)의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성남이라는 지명이 오래 전부터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남한산성에 대한 1595년의 수축과 1626년의 증개축보다 10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성남’이라는 명칭이 있었다는 것은 ‘성나미=성남’의 표기가 그 이전부터 사용돼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남’은 성의 남쪽, 성 너머 저쪽, 재 너머 저쪽을 나타내는 것(성=짓=재)으로 볼 수 있다.

■ 성남시의 연혁

성남은 기원전 18년 백제 지조 온조왕이 도읍지로 정한 하남 위례성의 옛터로 추정되는 유서 깊은 지역이다.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고대부터 각국의 주요 쟁탈지 중의 하나였으며, 삼국시대에는 백제·고구려·신라가 차례로 이 지역을 점령했다. 신라 문무왕 4년(664)에는 한산주(漢山州)로, 757년(경덕왕 16)에는 9주의 하나인 한주(漢州)로 개칭됐다. 고려시대의 성남지역은 940년(태조 23)에 광주(廣州)로 개칭해 부르게 됐고, 983년(성종 2)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광주목으로 됐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광주목은 1577년(선조 10) 광주부로 승격됐고, 근대 개화기로 들어서면서 1895년 오랜 전통의 행정 구획인 8도 체제에서 23부제로 개편돼 한성부 관할의 광주군이 됐고, 1896년에는 경기도 광주부가 됐다.

1910년에 「면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부면이 설치됐으며, 1946년에는 종전 세촌면 관할 구역 6개리(단대리·수진리·북정리·상대원리·창곡리·탄리)를 관할하는 중부면 직할의 성남출장소를 설치했다. ‘성남’이라는 지명이 공식적인 행정명칭으로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이때다.

1971년에는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의 시행으로 광주군 성남출장소 관할 인구가 14만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해 기존 광주군 성남출장소 관내 6개리와 대왕면·낙생면·돌마면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으로 경기도 직할의 성남출장소로 승격됐다. 1973년에는 경기도 성남시로 승격돼 18개동을 관할하는 시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됐으며, 대왕출장소와 낙생출장소가 각각 설치됐고, 1975년에는 돌마출장소가 설치됐고, 1980년에는 28개동으로 행정동이 분리됐다.

1988년에는 성남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돌마출장소·대왕출장소·낙생출장소를 폐지하고 수정출장소와 중원출장소를 설치했다. 1989년에는 수정출장소와 중원출장소를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으로 승격시켰으며, 1991년에는 신도시 분당이 건설되면서 분당출장소를 설치했고, 그해 9월 분당출장소를 분당구청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끊임없는 법정동 간 경계조정과 행정동 분동을 통해 1996년 3개구 44개동의 행정동이 형성됐으며, 2000년에는 행정동 명칭을 대폭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3개구 48개 행정동이 있다.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민선5기 후반기 이런 사업 추진해요!

본시가지 재개발

성남시 3단계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주민참여형으로’

산성, 상대원2·3, 금광3 구역… 3단계 재개발 착수 보고 ‘주민설명회’

경기 부진 등으로 침체돼 있던 재개발 사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3단계 재개발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의 착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5곳 동 주민센터를 돌며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에 용역 사업을 착수한 3단계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대상지는 ▲ 수정구 산성동 1336번지 일원 산성구역(15만8,023㎡) ▲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상대원2구역(25만3,557㎡) ▲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 상대원3구역(42만7,629㎡) ▲ 금광동 2640번지 일원 금광3구역(2만369㎡) ▲ 미도아파트 등 5개 구역 총 87만491㎡ 규모다.

성남시는 지난 1월 승인된 ‘성남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단계 5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유형, 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소개하고, 각 구역별 현황·정비계획수립의 방향·용역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의견을 듣고 궁금한 점을 풀어주었다.

앞으로도 시는 기본 구상, 부분별 계획 수립, 사업성 검토 등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 과거 관 주도로 이뤄지던 정비계획 수립 관행을 벗어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정비구역이 결정될 때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민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의 주체意識과 공공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1팀 031-729-4423



제1공단 공원화

대장동 공공개발 수익으로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제1공단 공원화 추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성남시 제1산업단지(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9월 17~19일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 공간구조와 장기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목표연도 2020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가화용지 중 수정구 신흥동 1공단 8만4천㎡는 주거·상업 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바뀐다. 이는 대장동을 택지로 공공개발하고 그 수익을 1공단에 투입,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시의 결합개발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시는 제1공단 부지 활용과 관련, 지난 8월 2일 희망대공원에서 노상방담을 개최,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5월 29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된 제1공단에 시민 문화휴식공간인 자연공원이 들어서면, 본시가지 환경여건 개선 등 도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토지주와 시의회의 협조,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경안에는 131만4천㎡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새로 지정됐다. 이 중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지방 이전 예정 공공기관 부지 33만3천㎡를 판교테크노밸리, 분당IT밸리와 연계한 연구개발센터나 벤처단지로 조성하는 구상이 들어 있다. 교통계획에는 상대원~분당 도로(7km), 학의~고기 고속화도로(10km), 수지~평택 수도권 고속철도(14.2km) 개설계획 등이 수정되거나 추가됐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확정된다.

사업추진과 택지지원팀 031-729-4511



2010년 7월 출범한 민선5기 시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중 시민숙원사업인 재개발과 제1공단 공원화, 성남시의료원 설립,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등 시민 관심 사안 몇 가지를 살펴본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성남시의료원 10년 만에 ‘첫 삽’
7개 대학 종합병원과 의료자문협약 체결
내년 4월 착공…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 2017년 준공

지난 2003년 수정구 지역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의 폐업으로 의료불편을 겪어 왔던 본시가지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성남시가 시민숙원사업인 성남시의료원을 내년 4월 착공할 예정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829㎡에 연면적 8만1,510㎡의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는 2017년 4월경 500여 병상과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지역 공공병원으로 태어나게 된다.

시는 본 공사 발주에 앞서 지난 6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 11명으로 이뤄진 자문기구 성격의 설립추진위원회와, 기획경영·진료지원·건축시설·장비운영 분야 설립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과위는 장례식장과 부대시설 확충, 진료과목과 전문의 조정, 병실 확충, 기준 병실 변경 등을 논의했다. 최대 쟁점인 운영방식·수탁기관 선정 등은 설립추진위에서 자문기로 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성공적인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의료자문 협약(MOU)을 7개 대학 종합병원과 체결했다. 협약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아주대병원, 인천시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 등 7곳이다. 이에 따라 이 병원들은 성남시의료원 시설·장비 구축, 진료, 의료진 구성 등에 관해 자문한다.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증진 방안 마련, 지역사회 의료봉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은 수정·중원구 내 종합병원 폐업을 계기로 2003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발족, 주민 발의로 조례제정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건립예산 반영, 10월 31일 구 시청사 철거에 이어 설립추진 10년 만에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머지않아 본시가지 의료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보건위생과 의료원설립팀 031-729-3112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

재정건전화 기틀 마련 위해
분양사업권 확보
수익금은 본시가지 순환임대주택 건설에 투자 예정

시는 자주재원 1조원 이상 확보를 위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한편 기업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위례신도시 개발 등 각종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7일 위례신도시 첫 민간건설사인 대우푸르지오의 견본주택에 방문한 인파는 3만 명이 넘어 ‘수도권 최적의 분양 물건’으로 인기를 모았고, 이어 22~23일 549가구(전용면적 106~112㎡) 청약도 분양가(3.3㎡) 1,810만원에도 4:1 넘게 마감되는 등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시는 국토해양부와 위례지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의 협의 끝에 어렵게 사업권을 확보해 놓고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위례신도시 분양사업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례지구 아파트 건립사업은 우리시가 위례지구의 사업권을 확보해 그 수익금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사업이다.

시는 위례신도시(A2-8블록) 6만4,713㎡에 일반분양 중대형 아파트(128㎡, 38평형) 1,137세대를 지어 1천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으로 수정·중원지역 재개발 순환임대주택 2,140세대를 지어 2단계 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위례지구 민간업체 분양가에 비해 시의 분양 예정가는 1,500만원 선으로 가격 면에서 유리하고, 서울·판교 등 인근지역 아파트 분양사례를 볼 때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성 또한 이미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아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어놓고 있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주택과 주택시설팀 031-729-3401



기회가 공평한 성남 | 비정규직 Zero화

“좋은 일자리에 자긍심도 생겼어요”

‘비정규직 → 정규직’ 성남시 압도적
122명 무기계약직 전환...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인원

성남시는 민선5기 ‘기회가 공평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적극 추진해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앞선 122명(2012년 7월 1일자)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가 9월 4일 발표한 ‘2012년 상반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서울시 등 몇몇 광역시와 중

양부처를 제외하면 우리시가 전국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 31명, 강원도 30명, 제주도 26명, 전라북도 17명, 부산·울산시 1명, 대구·인천·대전시 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성남시가 4~122배 많았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성남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성남시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인원이 많은 의왕시 11명보다 12배 차이를 보였다. 이어 광주시(7

명), 양평군(5명), 광명시(4명) 등의 순이었다.

성남시 공공부문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정규직화한 근로자 122명은 전환 대상자 357명 가운데 과거·향후 각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 종사자(기준일 2011.11.28)이면서 적격심사를 통과한 이들이다.

이들의 처우는 대폭 개선돼 호봉제(0~25호봉) 적용과, 복지포인트 1,100점(110만원), 명절휴가비(연 145만원), 퇴직금, 연가보상금 등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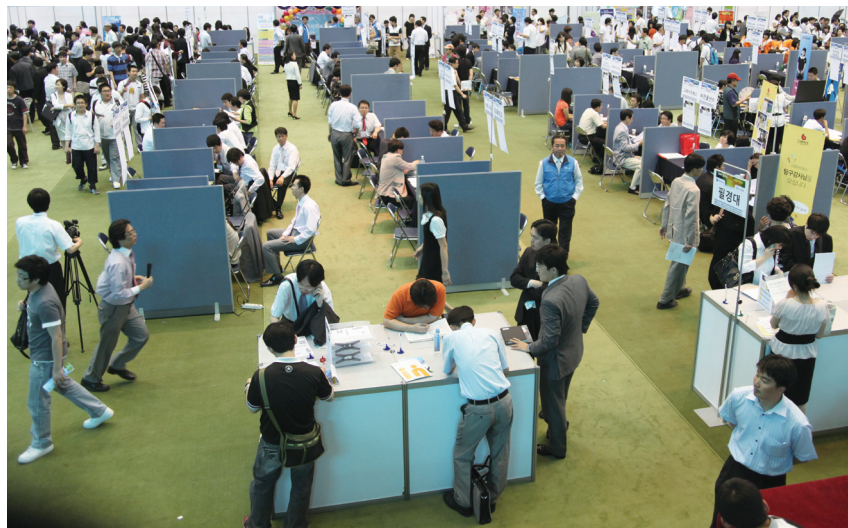
성남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준수하고 민선5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과 체육강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 3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로로 지난 6월 5일 한국노총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같은 달 27일과 28일 열린 ‘2012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 031-729-2243



Pride of 성남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대상 조사결과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사회정책 여론조사기관인 (주)포커스컴퍼니에 의뢰, 지

난 4월 23~29일 도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정체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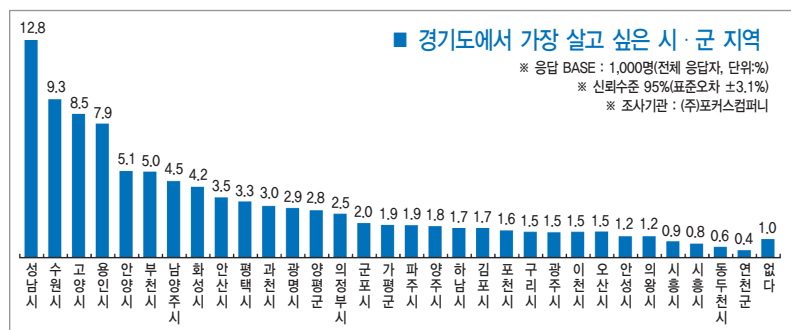
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성남시(12.8%)가 꼽혔다. 그 다음으로 수원시(9.3%), 고양시(8.5%), 용인시(7.9%), 안양시(5.1%), 부천시(5.0%) 순이다.

또 성남시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희망 비율이 광주 → 성남(27.9%), 이천 → 성남(17.6%), 부천 → 성남(17.5%) 등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남시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중심도시로 신분당선, 경부고속도

로,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입지여건이 탁월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등 IT 관련 첨단산업이 포진해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출산정책, 보육시설 등이 잘 돼 있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분당지역은 교육열이 우수해 특목고, 전문계고, 해외대학진학을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최우수 교육 인프라를 갖춘 명품 교육도시이기도 하다.



현장스케치 | 분당구청 앞 노상방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시민과 함께 해법 찾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필요 주민의견 모아 이익 되는 방향으로 추진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해법 찾기에 나섰다. 시는 9월 11일 오후 7시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 공연장에서 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노상방담을 벌였다.

이번 노상방담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사는 지역 주민의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관심이 반영돼 마련됐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의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22개 단지 8만6,339가구, 수정지역은 18개 단지 6,917가구, 중원지역은 23개 단지 1만2,967가구다. 이날 광정근 도시주택국장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경과 설명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민들간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한 분당주민 대부분은 입주한 지 15~20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 노후화로 녹물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리모델링 추진 시 재산 증식과 주민부담 최소화, 세제혜택, 세대분리, 추진 운영자금 지원, 주민 오해가 없도록 지속적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공기업 지방 이전 후 대책, 정자동 단독주택 단지 지원 방안,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지하화, 정자동 사유지 매각에 따른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의견과 답변이 오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규모 리모델링의 경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각종 의견 수렴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행시기 또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원센터 건립 후 단지별 특성에 따른 사업성을 분석하고,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노후 등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리모델링까지 긴 시간이 걸리니까 단기적으로 노후 급수배관 교체, 주차장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개보수 지원금을 올해 88억원에서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며 “시장의 역할은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시민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시정 운영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26일 주택법을 개정·공포해 85㎡ 미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 10% 범위 내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내놔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법은 증축 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 증축으로만 한정해 여

부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가구수를 늘릴 수 없어, 성남시는 지난 3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수직 증축 허용과 리모델링 기금 법제화 등을 다시 건의했다.

시는 지난 8월 2일 희망대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성남 제1공단 부지 활용에 관한 노상방담을 개최한 바 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729-2282

주택과 주택관리팀 031-729-3412

심희주 기자 heejoo719@daum.net



성남 "참여와 나눔 그리고 놀이"

어린이 벼룩시장

* 판매자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 환영해요.
* [성남's 핫 트렌트]에 신청해서 재능을 뽐내세요.

● 일시 : 2012. **10.6** (토)
오후 1시~5시

● 장소 : **성남시청 광장**

● 문의 : 031)712-5141
031)721-9577

● 참가신청 : www.snkyc.or.kr
어린이 물품만 판매 가능합니다.

[살림의 경제 한마당]도 함께 한대요.
-먹거리장터
-생협 생산자 직거래장터
-사회적기업 홍보와 전시판매

Seongnam Children's flea market

주최 농협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 주관 성남 KYC, 네이버카페 '분당·성남·아·라·참·거' 후원 성남시

추석연휴는 편안하고 훈훈하게~

오는 9월 30일은 우리 고유명절 추석이다. 시는 추석연휴인 9월 29일(토)~10월 1일(월) 3일간, 시민생활에 불편 없이 가족·친지와 편안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생활폐기물 배출

생활폐기물은 9월 29일(토)은 정상 수거하고 9월 30일과 10월 1일은 수거하지 않는다.

9월 28일(금) 오후 9시까지 쓰레기를 배출하고 10월 1일(월) 오후 6시까지는 배출을 삼간 뒤 1일 일몰 이후 다시 배출해야 한다.

시청 청소행정과 031-729-3191~5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031-729-5321~4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031-729-6321~4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031-729-7321~4

의료 응급상황 땐

시민의 의료 응급상황에 대비,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응급처치 : 119

당번약국 : 성남시약사회(www.snpass.or.kr)

가스사고 예방

고향 가느라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가스 미터기 전단밸브를 잠궜 뒤 야 안전하다. 가스누출 시 밸브를 즉시 잠그고 출입문을 열어 속히 환기시킨 후 도시가스 회사로 연락한다.

코원에너지서비스 콜센터 1599-3366

상황실 080-730-0119

공공도서관 열람실 개방

추석연휴에도 취업·학업을 준비하는 시민을 위해 일반열람실을 오전 7시~오후 8시 개방한다.

9월 29일(토)은 중앙, 분당, 구미, 판교, 수정, 중원 도서관 6곳이 모두 운영되며, 10월 1일(월)은 구미, 판교, 중원 도서관 3곳만 문을 연다. 추석당일은 휴관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031-729-4591

한가위 '서로 사랑 나누기'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한 명절,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기회가 있다.

시는 9월 30일까지 기업체와 기관, 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서로 사랑 나누기' 운동을 펼친다. 모아진 훈훈한 마음의 성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53곳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청 사회복지과 031-729-2841~3

수정구 031-729-5940~7

중원구 031-729-6360~7

분당구 031-729-7217~8, 7237~9

7245~6,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교통 편의

심야에 도착하는 귀성객을 위해 9월 30일~10월 1일 분당구 여객종합

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 버스를 새벽 2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연장 운행한다. 또 주차시설 편의를 위해 수정·중원지역 학교운동장 53개교 4,735면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다.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031-729-3702



넉넉한 추석 장보러 가는 그녀, 김가을 씨!

폭염, 태풍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내릴 것이라는 한 대형마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을 보러 가야합니다. 마음만 바빴던 결혼 10년차 주부 김가을 씨가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혼자서 장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혼자서 장을 보러 나가는 김가을 씨는 상에 올라갈 과일과 생선 등을 잘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맛있는 나물을 무치는데 넣을 기름을 사러갑니다. 전통시장 기름집에 가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준비합니다. 따뜻한 병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납니다. 들기름을 듬뿍 넣은 맛있는 고사

리나물 생각에 입에 침이 고입니다.

사과, 배, 밤 등 과일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저렴하지요. 나온 김에 사가기로 합니다. 예쁘고 흠이 없는 것으로 꼼꼼히 골라 담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생선도 미리 준비합니다. 대형마트로 발길을 옮겨 보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해 포장해 놓아서 생선손질에 애를 먹는 김가을 씨에게는 딱 맞

는 곳입니다.

모란장날에는 동태포를 사러 가네요. 지난 설날에 모란장에서 시어머니와 산 동태포가 도톰하고 모양도 좋았던 기억이 나서 일부러 나왔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 그런지 사람도 많고 물건도 푸짐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고추, 깻잎, 나물 등 갖가지 채소를 장바구니에 담고 집

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차 주부답게 알뜰하게 먹을 만큼만 담았네요.

아차, 고기를 안 샀습니다. 고기는 집에 들어가는 길에 동네 정육점에서 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담가 놓았던 쌀을 가지고 방앗간으로 갑니다. 떡집에서 만들어진 송편을 사서 상에 올려놓곤 했지만 올해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방앗간으로 향합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에게 추석의 대표 음식 송편에 대한 추억을 선물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송편이 누워있는 찜솔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가겠지요? 이번 추석은 알뜰살뜰 장보는 데 더 신경써야 했지만 마음만은 더 넉넉해질 것 같습니다.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사랑의 손’으로 전하는 이웃사랑 무료급식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신흥3동 골목이 붐빈다. 동신교회에서 장소를 무상 제공 받은 ‘사랑의 손 무료급식소’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이 넘게 160명의 어르신이 점심식사를 한다. 무더운 여름날도 비오는 날도 이곳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신흥2동에서 고물상을 하는 이흥길(67) 씨와 수진1동 김석래(72) 씨는 “매일 이곳에서 만나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점심도 먹을 수 있어서 고마운 마음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했다. 신흥1동에 사는 김단임(81) 씨는 “정성들여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어서 건강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했다.

식사시간 내내 식탁을 돌며 부족한 반찬을 채워놓는 회원들과 닭 뼈를 발라주는 사랑의 손 김의경(72) 회장의 정성스러운 모습은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18년째 사랑의 손에 몸담고 봉사해오면서 40대에서 80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회원들이 240명이나 된다.

하루 13명씩 봉사에 참여해 회원들 상호 간 이해와 협조로 모든 일을 척척해낸다. 빨간 조끼를 입은 회원들의 봉사하는 모습은 성남시 어느 행사장에서든 쉽게 찾을 수 있다. 독거노인 칠순잔치에서부

터 일주일에 2~3회 푸드뱅크로부터 빵을 받아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로 보내는 일이며, 추석이면 송편을 빚어 전달하는 봉사의 손길은 회원들의 사랑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

며칠 전 사회복지박람회장에서도 주먹밥 500개를 만들어 이곳을 찾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주먹밥의 소중함을 알려주었고, 다문화가정 20가족과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우리문화 익히기 송편 빚기 경진대회를 했다.

지금은 상대원2동 적십자봉사회 고문으로 있는 강기모(60) 씨는 “다른 복지관 뿐 아니라 이곳 ‘사랑의 손 무료급식소’에서도 배식봉사를 하는데, 사랑의 손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힘닿는 데까지 봉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차승일(62) 씨는 “봉사활동이 삶의 활력을 준다”며 “봉사를 받아야 할 나이인 김의경 회장님의 희생정신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면서 봉

사하는 일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훈장증서에서부터 표창장, 감사장들이 사무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봉사하는 순간만큼 이렇게 행복한 일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한다.

18년 동안의 아름다운 봉사를 펼쳐온 김의경 회장은 “우리 회원들의 정성스러운 수고로 사랑의 손 급식소 운영이 잘되고,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 식사를 행복한 마음으로 책임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어디 갔다 와?"

살가운 대화가 풍경이 되는 마을

거대 도시 성남 속 숨겨진 고향... '깊은 골' 심곡동

“우리 동네는요, 순흥 안씨와 성주 이씨의 집성촌인데다 동네 주민의 사십 퍼센트 이상이 원주민이어서 명절이 되면 부모를 찾아 이곳으로 오는 자손이 많은 고향 같은 동네지요.” 심곡동 노인회 안평길(72) 회장의 설명이다.

서울공항이 들어서기 전에는 아름드리 오리나무 가로수에 가려 외지 사람들은 그 길 사이에 마을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는 인능산이 품고 있는 깊은 골, 그곳이 수정구 심곡동이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마을 곳곳에 멋진 새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고 있지만 마을사람들은 여전히 ‘심곡동’보다는 ‘깊은 골’이란 옛 이름으로 동네를 소개한다.

마을사람 모두가 귀히 여기는 거북바위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고, 매년 음력 7월 1일이면 마을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대동제를 지내는 ‘우두물’과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

원주민인 안씨네는 불교, 이씨네는 기독교로 종교가 달라서, 마을 안에 절(안국사)과 교회(심곡교회)가 사이좋게 자리하고 있는 마을.



지은 지 100년도 더 된 집에서 아직도 안방엔 나무로 불을 지피며 산다는 마을 주민 이상신(57) 씨는

“안씨, 이씨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랜 세월 친척 이상으로 정을 나누며 어울려 살다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요. 그러다보면 서로 자연스럽게 닮아가기도 하구요. 하하하~”라며 훈훈한 웃음을 웃는다.

‘무엇을 하든 동네 주민 모두가 함께’를 기본으로 생각한다는 이화복(66) 부녀회장은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이 많아 주민 간의 단합을 위해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3일 삼척 야유회를 통해 한 술에 밥해 먹으며 같이 뛰고 놀다보면 서먹했던 관계도 정겨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웃는 모습으로 찾는 이를 반기고, 소박하지만 정감 있고 넉넉한 인심이 살아 숨 쉬는 곳. “어디 갔다 와?” “오늘이 모란장날이어서 장에 갔다 와요.” 텃밭에서 고추 따던 아주머니와 이웃집 새댁의 살가운 대화가 풍경이 되는 마을. 햇살이 내려앉은 낮은 지붕과 낮은 돌담길이 있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 흔하며, 아직도 상여가 존재하는 마을. 그곳에 가면 옛이야기 안주 삼으니 오늘 처음 만난 외지 사람도 정다운 이웃 같은, 거대 도시 성남 속에 숨겨진 고향을 만날 수 있다.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중국 심양시 총공회 대표단 성남시의회 방문



지난 8월 27일 오후 중국 심양시 총공회의 단양 부주석을 비롯한 대표단 5명이 한국노총 성남시지부 의장단과 함께 성남시의회를 방문했다.

총공회는 회원이 120만 명에 이르는 중국 최대의 노동단체로 이번 방문은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양 도시의 노사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이루어졌다.

최윤길 의장은 “성남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공원에 심양시를 상징하는 공원이 조성돼 있어 항상 친근함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양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발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단양 부주석은 “지난 8월 24일부터 심양에서 한국주간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성남시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담 후 최윤길 의장과 단양 부주석은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의회 관계자의 안내로 본회의장 등을 둘러본 후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발달장애인 성남시의회 방문

성남시 거주 발달장애인 5명이 인솔교사와 함께 8월 23일 오후 성남시의회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장애인부모회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의사진행 과정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기영 의원의 안내로 본회의장을 찾은 발달장애인들은 의회시설을 둘러보고 홍보영상물을 시청했으며, 의회 관계자로부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기영 의원은 “오늘 견학이 발달장애를 극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권리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고등학생 성남시의회 방문

필리핀 깔링가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 학생 8명이 인솔교사 등과 함께 8월 29일 오후 성남시의회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의회 관계자의 안내로 본회의장과 방청석을 견학하고, 본회의장의 의원석에 앉아 성남시의회 홍보영상물을 관람하고 기념촬영의 시간을 가졌다.

견학 후 학생들은 “시의회의 좋은 시설에 감탄했다”면서 “안내자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할 설명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으며,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필리핀 학생들의 성남시의회 방문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며, 한국에 있는 동안 건강히 잘 있다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늘 시민을 대변하고
함께 하는 열린의회”**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모두가 함께 하는 **참여의회**
시민만 생각하는 **원칙의회**
사랑과 희망주는 **믿음의회**
최선을 다해 가는 **책임의회**



백열등(60W)을 형광등(24W)으로 교체하면 연간 17kg의 CO₂를 줄일 수 있어요 |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성남시 '게임 최강 · IT 천국'으로 우뚝 제4회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 5만여 명 다녀가



성남시가 '게임 최강 · IT 천국'의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성남시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국내 유일 기능성게임 축제, 2012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이 지난 8월 31일~9월 2일 성남시청에서 열려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좋은 게임, 착한 게임, 기능성 게임'을 주제로 교육과 의료, 공공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전시회와 대한민국 기능성게임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전국 기능성게임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기능성게임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국내 유일의 기능성게임 행사답게 삼성전자, KT, NHN,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기업 등 총 197개 기업이 참가했다.

국내외 77개 콘텐츠 기업과 구매력을 갖춘 57개 바이어 간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시 관내 기능성 게임 기업 '헬로 앱스'의 300만 달러 수출계약 등 총 상담실적 5,966만 달러, 수출 계약 1,158만 달러를 달성했다.

기업지원과 첨단산업팀 031-729-2653, 성남산업진흥재단 031-8016-3084

이웃 돕는 '쌀 천 섬 모으기' 운동 시작 시청 광장에서 열린 사회복지박람회 '성황'

제13회 사회복지의날을 기념한 '성남복지박람회'가 9월 7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려 성황을 이뤘다.

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 시설 · 기관 · 단체 종사자와 일반시민 등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장애인 휠체어 타보기, 심리 · 정신건강검사, 신장병예방테스트, 노인폭력 고충 상담 등 사회복지 사업의 다양한 영역을 알아볼 수 있는 140여 개 부스가 운영돼 각 부문을 체험해 보려는 이들로 이날 시청광장은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쌀 천 섬

모으기' '우수리 동전 모으기' 운동이 시작돼 쌀과 동전 모으기 부스

에는 쌀이 한 되(2천원), 한 말(2만원), 한 섬(20만원)씩 쌓이고, 해외여행 후 쓰다 남은 외국 동전 등 동전이 쌓였다.

사회복지 유공자 23명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성남시는 매년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사회복지 행사를 열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031-729-2833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승승장구' 시 고령친화기업 10개사... '시니어 & 장애인 엑스포'서 27억원 규모 상담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관내 고령친화기업 10개사를 '2012 시니어&장애인 엑스포(이하 SENDEX)'에 참가 지원해 27억원 규모 상담과 5억원의 수출 계약을 이뤄냈다.

지난 8월 30일~9월 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이 행사는 독일, 일본 등 16개국 100여 명의 해외바이어와 국내 200개 기업 · 기관, 3만여 명의 장애인 · 노인 업계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영일옴, 옥시젠클럽, 천사메티칼 등 성남시 관내 기업은 전통침대, 건식족욕기, 시력회복운동기, 산소발생기, 장애인용 운동기구 등 30개 품목의 건강관련기기를 선보여 주목 받았다.

성남시는 민선5기 들어 고령친화산업을 전략적으

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확산, 수요창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융 · 복합기술개발, 품질공정 개선,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분당 구 야탑동에는 다양한 노인 관련 제품의 전시공간과 체험공간을 갖춘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서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지원과 산업진흥팀 031-729-2632



포토 뉴스

청렴도 향상 공직자 교육

시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50위권 내 진입과 '부패경쟁력 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9월 4일 간 부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경쟁력 제고 방안' 등 성남시 공직자 청렴 정책교육을 실시했다.

감사관실 조사1팀 031-729-2134

음식문화 개선 '최우수'

시가 경기도 31개 시 · 군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음식문화개선사업 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덜어먹기 및 개별찬기사용 생활화, 남은 음식 포장해 주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전한 음식문화 인식을 심어준다는 평가와 함께, 외식사업 전문가 컨설팅, 향토음식 남한산성 닭죽 브랜드화 등의 대표음식 발굴 육성 등 각종 특화사업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031-729-3103



토종 다슬기 20만 마리 탄천 방류

시는 친환경 자연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9월 6일 토종 다슬기 20만 마리를 탄천 구미교 주변과 운중천 등에 방류했다. 하천 수질정화작용에도 효과가 있는 다슬기를 방류함으로써 하천에 다양한 어종이 어울려 살도록 하천 환경에 건강한 생명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정책과 환경보호팀 031-729-3153



제5차 창조경영 리더십 아카데미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조경영전략과 기업혁신에 필요한 전문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10월 17일(수 07:30~09:30)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조찬강연회를 연다. (주)바이오앤진 김상용 박사가 초청강사로 나와 '기술 융복합의 기회 발굴 프로세스'를 강연한다.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16



“장난감 걱정 없이 아이 키우세요”

성남시청 장난감도서관 대여공간 확장
회원 1천명 추가모집... 10월 문 연다



성남시는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10월 중 별도 확장하고 회원 1천명을 추가 모집한다.

영유아 발달에 유익한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은 유아기 3세 미만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재료를 장난감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최초로 개관했다. 회원수가 개원 당시 500명에서 올 9월 현재 시청사를 포함 수정구와 분당구 등 3개 지점 2,150명으로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청 9층 기존 아이사랑놀이터 맞은편 공간에 145㎡ 규모의 ‘장난감도서관’을 확대 설치하기로 하고 신규회원 1천명을 맞을 계획이다.

이번 장난감도서관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성남시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장난감도서관 대기회원 수요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 모집(10.23~11.5 예정)은 10월 중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educare.or.kr/echild>)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온라인 자동추첨(11.7 예정)을 통해 회원을 선정하게 된다. 회원이 되면 1년 동안 장난감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1회에 3점을 2주 동안(1회에 한해 1주 연장가능) 빌려 쓸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은 기존 아이사랑놀이터와 동일하게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된다.

성남시 내 장난감도서관은 성남시청과 수정구 단대동, 분당구 판교동 등 3곳에 설치돼 있으며 2013년 말경 중원구 중앙동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과 보육정책팀 031-729-2935

시청아이사랑놀이터 031-756-1640

성남시보육정보센터 031-721-1640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악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지금,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고 한다. 가정이나 일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아본다.

1. 성범죄자 알람

(<http://www.sexoffender.go.kr/>)

–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둔 후 조심한다.

2. 성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

-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요청한다.
-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상담한다.
- 재피해 혹은 제3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다.
 - 아동 성폭행 신고 117
 -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
 - 경찰신고 112
 - 병원에 가야할 때 119
 - CCTV 비상벨 활용 (위치 확인돼 신속 정확하게 연결됨)
- 원터치 SOS 신고 : 112 단축번호 ①번
 - 범죄에 직면한 급박한 상황에서 번호를 누르면 신상정보·현재 위치를 즉시 확인해 피해자 구조
 -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가입
 - 가입대상 : 아동·여성 등

3. 성폭력상담 전문기관

-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51-1120
-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1-755-2526
- 여성부 지원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031-708-1375~6

자료제공 : 중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안윤자 기자 lee8509@hanmail.net



꼭 알아두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성남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한 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차령이 7년 이상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차량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한 적 없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하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은 최고 150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폐차 전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 보조금확인서를 받고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시청 녹색성장과 031-729-3163

온실가스 감축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세요

가정과 상업시설, 기업에서 온실가스 발생원인인 전기·상수도·가스의 사용을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로 환원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가입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연2회 1포인트 2원으로 산정해 지급되며, 전기 1kwh 절약 시 82.8원, 수도 1㎡ 절약 시 66.4원, 최초가입자에게는 5천원이 별도 지급된다.

그린카드 소지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미소지자는 홈페이지 입력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시청 녹색성장과 031-729-3162~4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한다. 9월 3일~10월 2일 거주 사실 조사를 거쳐 11월 2일까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변경 등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 및 증발급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진신고(과태료 최대 3/4 경감) 바라며, 사실조사기간 중 조사원증명서를 소지한 조사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시청 민원여권과 031-729-2371~3

구청 시민봉사과 | 수정구 031-729-5080~2

중원구 031-729-6080~2

분당구 031-729-7080~2

재난징후정보 제보하세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 메뉴 ‘민원·참여’ → ‘재난징후정보 제공’ → ‘글쓰기’ 버튼 클릭 → 내용입력(사진, 위치 등) 시청 재난안전과 031-729-3542



착한 납부 튼튼한 성남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2012.6.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납부 기간 : 9월 16일 ~ 10월 2일
- 납부 장소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 편리한 납부방법 :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표기)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 전화 납부

농협 1588-2100

헬로페이 060-709-3030

ARS 031-729-3650

문의 : 구청 세무과

수정구 031-729-5160~3

중원구 031-729-6160~3

분당구 031-729-7160~3

031-729-7480~3





클릭! 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www.jwyouth.or.kr

• **만질 수 있는 과학, 꿈꿀 수 있는 IT ‘제3회 성남시 청소년 IT Science Festival’** : 오는 10월 20일(토)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과학과 예술’을 모토로 연다. IT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체험관과 저명인사 세미나, 슬로건공모전과 온라인 FIFA 축구게임대회, 아이패드난타공연과 유명 가수 및 청소년 댄스 공연, 게임중독 진단 및 상담부스 등이 선보인다.



031-750-4683

•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일 학교 ‘토요편 스쿨’** : 수정·중원구 내 취약계층의 중학교 1~3학년이나 홈스쿨링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구·골프 등 스포츠활동,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법’ 강좌 등 인성함양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이 8~12월 진행된다. 야외체험활동도 월1회 실시된다. 참가 희망 청소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문의 후 신청서와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031-750-4639

서현 물과 환경생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은 10월 19~20일 시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물’을 주제로 한 이론교육과 공예체험 등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한다. 10월 6일(토)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070-4490-8322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체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은 10월 13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경기도 이천시 설상면 금당리에서 관내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의 추억거리가 될 당일 캠프 ‘가족 농장 이야기’를 연다. 프로그램은 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잣소목장체험과 우유짜기, 고구마 캐기와 밥 줍기 등이며, 9월 27일(목)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참가비는 청소년 2만원, 성인 3만원.

031-783-4300(내선 2019)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www.pg youth.or.kr

•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인형극 - 창이와 뽕덕네’ : 오는 10월 19일(금) 오후 7시 수련관 공연장에서 ‘뽕이로와 함께하는 푸른꿈 예술무대’ 여섯 번째 이야기로 심정전을 근거로 한 퓨전 인형극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예약은 당일 오후 6시 20분부터 좌석표를 배부하며 공연 20분 전 선착순 입장이다.

070-4612-6672

• **나래누리 주말체험, 우리나라 고추장 체험** : 초등 3~6학년이 고추장, 메주 만들기 등에 도전한다. 단백질과 비타민B2, 비타민C, 카로틴 등 몸에 유익한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된 고추장! 인스턴트 입맛에 익숙한 도심 청소년이 고추장과 가까워질 좋은 기회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10월 9일(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이메일(pgyouth@hanmail.net) 접수(신청서는 홈페이지서 다운로드)한다.

070-4012-6688

•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신나는 주말 방과후’** : 맞벌이가정의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3~12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학습지도, 미술치료와 영어뮤지컬 등 정서지원, 생활지도, 야외체험학습이 지원된다. 급·간식도 제공된다. 매월 23일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하며 참가비는 월 5만원이다. 저소득가정 청소년 5명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070-4012-6687

• **박물관은 살아 있다** : 10월 셋째 주 청소년체험 프로그램이 10월 20일(토) 09:00~18:00 초등 3~6학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려의 금속활자와 조선 산성의 배경과 역사를 체험하고 학습하게 된다. 참가비는 2만원, 참가자는 10월 8일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한다.

070-4012-6683

농촌에서 가을을 즐기자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은 10월 27일(토) 마들거리 마을에서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아빠의 추억 무작정 따라하기’ 농촌체험을 진행한다. 벼베기, 메통과 절구질, 송어잡기 체험을 통해 우정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초등 4~6학년은 10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하면 된다.

070-7487-2806 www.sn-atti7979.or.kr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www.sn1388.or.kr

•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일 학교** : 초등 4학년~고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집단상담과 특강 등이 9~12월 매주 토요일 무료로 마련된다. 선착순 전화 접수.

031-756-1388, 031-750-4692

• **취약계층 자립지원 ‘두드림존’** : 오는 10월 27일 분당구청 앞 청소년문화존에서 두드림존 자립기술 습득 프로그램 ‘뽕뽕비즈(Fun Fun Biz)’가 열린다. 창업아이템 선정에서부터 판매, 결산까지 비즈니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자리다. 사회진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24세 학업중단 청소년은 전화나 이메일(sn1388@hanmail.net)로 신청, 참여할 수 있다.

031-750-4678

성남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담지원센터

• 전화 : 031-735-2898
주소 : 수정구 신흥1동 5513번지 4층
• 성남지역의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리 보장 및 각종 지원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

저자 정회일의
‘마음에 불을...’ (9)

원서(原書)를 소리내서 읽으면 좋다?

많은 한국인이 자주 묻습니다. ‘정말로 그냥 소리 내서 읽으면 돼요?’ ‘해석 안 되는데 그냥 읽으면 돼요?’ ‘모르는 단어 있어도 그냥 읽으면 돼요?’ 네, 그냥 반복해서 읽으면 됩니다.

저는 2005년 영어를 시작하면서 원서(原書)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읽는 척’ 하면서 품을 잡았죠. 그러길 반 년을 넘게 하고 나니 원서를 읽는 척 하는 게 좀 익숙해졌습니다. 제대로 읽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순 공부하고, 원서 읽은 양이 쌓이기 시작하고, 영어 고수들의 공부법을 연구하면서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쯤 되니 한/영 대역관을 볼 때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의식 못하고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많은 영어고수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공부법을 확인해왔습니다. 정말 많은 고수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원서를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원서를 찾고, 그것을 소리 내어 반복해서 읽는다’입니다. 7년간 직접 체험하고, 수백 권의 책과 수십 명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원서를 소리내어 읽으면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한국의 중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다시 묻습니다. ‘정말 원서를 소리내어 읽기만 하면 되나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은 그 사실을 알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 좋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죠. 실제 해보지 않아서 정말 좋은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언제 바뀌는가? 여러 사람을 통해 ‘원서를 소리내어 읽으면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듣다보면 바뀝니다. ‘어라, 진짜 그런가?’ ‘그럼 해볼까? 진짜 되려나?’ 하는 생각이 시작되면 조금씩 적극적으로 소리내어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의심이 없어지지 않죠. 계속 원서를 소리내어 읽다가 영어가 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순간, ‘아, 진짜로 원서를 소리내어 읽으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해봐야 깨닫게 됩니다. ‘보거나 듣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빠르게 넘어오는 법은 ‘믿는 것’입니다. 미리 경험한 사람의 말을 ‘믿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엉뚱하게 시행착오 겪으며 시간, 돈 낭비 할 일이 줄어듭니다. 남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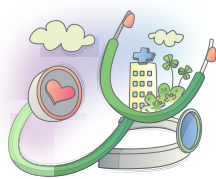
저자 소개: 7년 투병기간 동안 2천권 독서. 독학한 영어로 현재 강남서 영남한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저개발 국가에 우물파기 등 기부사업 중. <http://cafe.daum.net/realstarteng>(‘영남한’ 검색) ‘회일샘’ 게시판에 저자의 더 많은 글이 있습니다.

• 2012년 10월 15일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출연(CBS TV)

건강
100세

유 희 정
성남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장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아시나요?



유치원에서 동물에 대해 배우던 중, 우현이는 시대별 공룡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우현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선생님도 잠시 있다가 들려달라고 했지만 아직 백악기 공룡을 다 말하지 못했다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우현이는 평소 친구들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함께 놀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친구들의 표정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자폐증부터 아스퍼거 증후군까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 ASD)는 드물지 않은 발달성 질환이다. 아동 가운데 1~2%가 여기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자폐증부터, 언어지연이 없는 아스퍼거 증후군까지가 모두 포함된다.

ASD의 3가지 특성은 크게, 1) 대화와 의사소통의

발달 지연 또는 질적 저하, 2)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상, 3) 관심사가 제한적이며 행동이 반복적인 것이다. 이 중에 특히 사회성의 발달이 가장 문제가 되며, 때로는 매우 명석하고 언어기능이 뛰어난 아이들조차 친구 사귀는 능력의 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영동한 아이’로 여겨져 외톨이 되기도

과거에는 ‘자폐장애’라고 하면 언어가 없거나 눈 맞춤을 전혀 못하거나, 기초적인 부모님과의 관계 맺기 능력조차 없는 아이들만을 지칭했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ASD를 가진 아동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 표정, 기분, 생각, 의도, 말 속에 숨은 뜻,

유머나 은유, 반어법 등을 이해하는 것이 특히 힘들다. 보통 타인과 교류하기 힘든, 매우 좁고 강렬한 자기만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래들 사이에서는 한 박자 늦는 아이, 엉뚱한 아이, 지나치게 고지식하거나 조화되기 힘든 아이로 여겨지기 쉽고, 그 결과 외톨이로 혼자 지내게 되는 일도 빈번하다.

인지행동·약물 치료, 부모교육 등 광범위한 치료 필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사회기술 훈련, 상황 이해력과 공감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인지행동 치료, 불안이나 감정기복, 주의력 부족 같은 동반 증상을 줄이기 위한 약물치료, 부모교육 등 광범위한 치료가 필요하다.

일찍 발견할수록 예후는 좋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면 다른 문제점들은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기능이 뛰어난 아동일수록 잘 발견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최근 몇 달 간,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돼 병원을 찾은 아이들 중 반 정도가 실제로 ASD를 가지고 있었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의 소셜 네트워크를 이해하거나 적응해 나가기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다.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031-751-2445

소비자 Q&A

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 해제 시 환급규정은?

Q 아기를 낳기 약 한 달 전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총 이용금액이 310만원이고, 그 10%인 31만원을 예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사정상 입소예정일을 27일 남겨두고 해약하게 됐는데 예약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산후조리원 계약 후 입소 전에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입소예정일이 31일 이상 남았거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라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남은 입소기간에 따라 환급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만일 입소예정일이 21~30일 남았을 때는 계약금의 60%를, 10~20일 남았다면 계약금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예정일이 1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는 입소예정일이 27일 전이므로 계약금의 60%인 18만6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

드림라인 순환운동 프로그램 4기 모집

분당구보건소는 운동요법과 영양상담 등 체계적 건강관리로 목표체중을 달성하게 돕는다. 오는 10월 29일~12월 29일(9주 과정) 체성분 검사 결과 BMI 25 이상인 60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희망자는 9월 24일~10월 19일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체성분 검사 후 접수하면 된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4009, 4005

뇌병변·지체장애인 재활운동실 운영

관내 3개 보건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뇌병변·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하지 연동운동기와 좌식 스텝퍼, 전동 상하지 운동기, 트레드밀, 안마의자, 작업치료 도구 등 운동기구 50여종을 비치,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또 중풍교실, 장애인 무료진료, 정서재활교실, 발마사지 교실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내 뇌졸중, 중추신경계 손상, 지체장애, 사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복지카드 3급 이상 소지 장애인은 누



건강교실

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질병·사고 등으로 일시적 장애를 입은 지역주민에게는 휠체어 등 7종의 재활 용구를 무료로 대여, 의료비 절감과 재활촉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 수정구 031-729-3849

중원구 031-729-3910

분당구 031-729-3969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1회당 120만원 범위에서 지원,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는다.

청소년 임신부가 산부인과나 병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로, 1일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maternalka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원된다.

카드신청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함

께 전담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 우편 송부(본점영업부 maternalka 담당자 앞)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로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면 된다.

보건소 임신부실 | 수정구 031-729-3886

중원구 031-729-3908

분당구 031-729-3967

제8회 세계 당뇨병의 날 ‘건강권기대외’

2012. 10. 13(토)

09:00~13:00(개회식 10:00)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 대상 : 당뇨병인과 가족, 일반시민
- 진행 : 09:00~10:00 접수 및 혈당측정, 영양상담
10:00~11:00 개회식, 걷기대회 진행
11:00~13:00 혈당측정, 경품추첨, 부대행사
- 걷기구간 : 분당천 → 중앙공원 외곽(4km 1시간 소요)

수정구보건소 031-729-3859

중원구보건소 031-729-3920

분당구보건소 031-729-4005

분당차병원 031-780-5550

분당제생병원 031-779-0220

분당서울대병원 031-787-2326



아름다운 나의 서재

‘대한명인 나전 끝음장 제 10-295호’ 방극완 명인 천년을 이어온 영롱한 나전의 빛, 그 예술의 극치

나전칠기(螺鈿漆器), 칠기에 전복이나 소라껍질을 갈아 문양을 넣어 장식하고 다시 칠을 한 후 표면을 갈아내어 무늬를 드러나게 한다는 나전칠기는 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민속 공예다.

천년의 숨결을 고스란히 지키고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계승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으니 ‘대한 명인 나전 끝음장 제 10-295호’ 방극완(51·수정구 산성동·사천) 명인이다.

“빛깔이 맑고 영롱해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나전의 그 오묘한 빛에 심취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방 선생은 30여년을 오로지 나전과 함께했다.

지난 2009년 6월, 경기도공예품대전에서 ‘나전의 빛과 함께’로 대상을



작품명 : 철쭉꽃의 향연(2009, 대상)

수상, 수많은 상을 받은 선생은 제1회 ‘2009 성남 모란 민속공예 전국 대전’에서 ‘철쭉꽃의 향연’으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까치와 은행나무와 철쭉은 성남의 상징으로 성남을 알리고 싶어 철쭉꽃을 모티브로 삼았고, 내 고장의 무한한 번영과 발전의 염원을 돌 틈도 파고들어 뻗어나가 살아 숨 쉬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녀석으로 표현했다”는 방 선생. 재료를 실처럼 잘게 잘라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드는 끝음질기법을 사용하는 그의 혼과 정신이 담긴 작품은 전통 기법을 살리면서 독창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아름답다.

작품 소재를 자연 속에서 찾는 선생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 살갓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 모두가 자연”이며 “자연만큼 큰 스승은 없고 사람은 자연의 일부며 풍경의 일부로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과정이 까다롭고 끊임없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나전칠기, 전통의 맥을 잇는 건 우리의 정체성을 갖

는 일이라는 그는 전통 민속공예의 활성화를 위해 후진 양성은 물론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에서 공예체험수업을 진행 중이다.

“혼자가 익숙한 아이들, 그래서 어울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미약하나마 넉넉처럼 어울려 사는 것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 주고 싶다”며 “체험을 통해 잠시나마 인내를 배우고 전통 공예가 주는 정서적 함양과 내 고장에도 체험관과 전통 공예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다”는 선생은 “손수 만 들었다는 성취감과 까치 한 마리, 은행나무 한 잎, 철쭉꽃 한 송이 가슴에 품고 돌아간다면 더할 수 없이 족하다”고



말한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영롱한 빛의 나전은 더욱 빛이 난다”는 그는 우리 문화는 안방문화라며 그 중 하나인 나전칠기를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곳에 공간연출을 해서 명맥뿐인 우리의 전통 민속공예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나전칠기, 어두운 곳에서도 빛나는 그 또렷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 방극완 선생이 아름다운 건 선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나전칠기의 그 모든 것에 선생의 혼과 정신이 배었기 때문이다.

조민자 기자 dudldk@hanmail.net

문화칼럼

수평적 폭력과 수직적 폭력 사이에서

김기덕 감독 영화가 주는 미학 수직적 폭력 천착 아쉬워

저는 오랫동안 김기덕 감독 ‘광팬’이었습니다. 그의 영화 디브이디(DVD) 타이틀을 사 모으면서 문제작 <섬>의 촬영현장도 보았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가 독특한데 매시지가 강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영화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제69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18번째 영화 <피에타>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잔인한 슬픔, 맥락(서사)보다는 부분(전체를 이해하지 않고도 그의 영화는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에다 승부를 거는 단편 영화 같은 요소. 이런 점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슬픔은 슬하게 눈을 질끈 감게 하고도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

런 불편함, 낯설음은 그의 영화가 지니고 있는 미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에타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라, 저 닭장 속의 폭력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쪽에 시선을 돌릴 것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제69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장면

을 강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밑바닥 인생 사이에서도 예외 없이 돈은 신(神)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사치입니다. 서로 물고 뜯습니다. 그 폭력은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피에타는 그 풍경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는 알제리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프란츠 파농이 하층민 사이의 폭력을 목격하고 최초로 사용했던 용어 ‘수평적 폭력’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수평적 폭력은 ‘수직적 폭력’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김기덕 감독 영화에서 떨어진 근본적 요인일 것입니다. 피에타에서 채무자들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강도(이정진)’의 뒤늦은 뉘우침 끝에 택한, 피해자 소

형트럭에 매달려 죽는 마지막 결말을 보고 우울했던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도, 더욱이 구원도 아닐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닭장 속에서 닭들이 아비규환인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커다란 힘이 작용한 탓입니다. 그 힘은 구조적 모순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천착하지 않는 ‘수평적 폭력에 주목!’ 메시지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덕 표 영화는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영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건행 / 한양대 국문과를 나와 일간지와 시사주간지 등에서 미술·사건·증권기자로 일했다. 저서로는 임권택 감독의 <창>의 원작이 된 장편소설 <세상에 선 여자>가 있다. 보이차 전문점 대표.

story

트럭 운전수 남편의 파이팅!

유 일 속 | 수정구 태평4동

트레일러트럭 운전을 하는 남편, 벌써 11년째다.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대여섯 시간은 기본이고 왕복 7~8시간을 운전하기도 한다. 거의 철인 같은 체력과 육체적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남편은 처자식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버틴다며 웃는다.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자기 트럭을 타고 같이 가자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냥 마누라와 데이트하고 싶어서라며 껄껄 웃었다.

그래서 남편 트럭을 타고 꼬박 하루를 같이 돌아다녔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 차가 커서 마음대로 주차하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니 허리도 아팠고 과적차량 단속에 걸릴까봐 적재량 조절에도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그런 좁은 트럭 안에서 2,3일씩 새우잠 자며 일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정말이지 너무나 안쓰러웠다. 점심값도 아낀다며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는 남편,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남편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얼마 전부터 남편은 예전과 달리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렸다. 소변을 보러 간다고 했지만, 보통사람이 화장실에 가는 횟수보다 서너 배는 자주 가니 이상했다. 3~4일에 한 번 꼴로 옷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화장실을 그렇게 드나드니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급기야 남편이 집에 돌아온 날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이런저런 검사를 마치고 며칠 뒤 결과를 보

러 갔더니 전립선 비대증에다가 과민성 방광염이라 했다. 증세는 소변을 자주 보는 거라 했다. 장시간 운전하는 트럭 기사, 택시 기사들이 이런 증세에 걸린다는 것이었다. 약간 먹으면 되기 때문에 큰 병은 아니라 했지만 은행 대출, 차 할부금 등을 빨리 갚아야 한다며 하루도 쉬

는 날 없이 밤낮도 없이 일만 하는 남편이 안쓰러웠다. “뭘, 그까짓 것 갖고 걱

정해? 이 마누라야!” 하며 약국에서 내어준 약 봉투를 들고 앞장서는 남편. 이런 ‘아내 바보’ 같으니라구….

결국 나도 그렇게 일하는 남편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식당 주방

에서 일하기로 했다. 남편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식당 주방 일까지 하나”며 펄쩍 뛰었다. 아이나 잘 키워 달라며. 하지만 “내가 아이 보고 집이나 지키는 사람이나”며 부부싸움(?)까지 하는 끝에 결국 남편을 이기고 식당 주방에 출근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나도 돈벌이를 시작해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다. 적은 월급이지만 젊어서 고생은 얼마든지 사서 한다는 데 지금 되레 행복하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날은 삼겹살이라도 마음 편히 사 들고 갈 여유가 생겼으니.

오늘도 새벽에 밥값 아끼겠다며 점심과 저녁 2개 도시락을 싸 들고 나서는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응원한다. “여보! 안전운전, 방어운전… 그리고 건강도 돌봐 가면서 일하세요. 우리 토키들 잘 자라고 있잖아요. 파이팅!”



이달의 포토



느린 우체통

울동공원 내 책테마파크 입구에 8월 22일 들어선 빨간 우체통. 오늘 쓴 편지를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느린 우체통’이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란다. 무료로 편지와 봉투, 우표를 얻고, 그리운 이에게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본다. 그리고 예쁜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쏘옥~ 이번 가을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권혜경 | 중원구 은행동

이 책, 어때요? 『예술가가 여행하는 법』



『예술가가 여행하는 법』
데이비드 벤 지움
이은선 옮김
바다출판사, 2012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긴 호흡을 해본다. 코끝에 스미는 가을 내음과 어릴 적 타고 놀던 친밀한 관계의 세 발 자전거, 그리고 10대 사이클 선수시절에 친구들과 유행처럼 타고 놀던 자전거 하이킹!

몇 년 전에 잃어버린 자전거를 생각하다가 얼마 전 눈에 들어온 책이 바로 『예술가가 여행하는 법』이다. 세계의 대도시로 자전거를 타고 다양한 우리 인간과 자연, 도시와 건축, 역사와 정치, 문화와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그의 예술가적 통찰력으로 만나고 생각한 것을 담은 관찰과 사색의 기록이다.

저자 데이비드 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도시의 건축물을 독특한 시각언어로 얘기해준다. 뉴웨이브 음악 밴드 리더 싱어인 저자가 순회공연 때마다 가져간 접이식 자전거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스탄불, 샌프란시스코, 런던, 베를린, 마닐라

그리고 뉴욕과 미국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몰랐던 이야기들을 찾아낸다.

요즘은 다문화로 세대가 다양해짐에 따라 생각과 느끼고 보는 것이 다양성 그 자체이다 보니 읽을거리로 추천한다. 그림이 그려지는 도시들의 사진과 함께 읽는 내내 재미를 더한다. 그중 뉴욕시를 위한 자전거 거치대를 착안한 예술성이 놀랍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인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파노라마처럼 다가오는 시야를 이 가을에 즐겨보자. 성남도 신도시답게 탄전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어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삼삼오오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

상큼한 가을바람과 함께 시야에 들어오는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서 우리 마을이 참 좋다.

이영애 | 분당구 서현동

독자마당 안내

독자 수필(원고지 5매 내외)과 추천도서(독후소감), 사진(성남지역 풍경·사람들, 200만 화소 이상)을 모집합니다. 10월 8일(월)까지 보내주세요(주소·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비전성남> 편집실 031-729-2075~6 이메일 sn997@korea.kr

통장님! 비전성남 배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여성 생활체육 강좌 ‘음악줄넘기’ (초급) • 일 정 : 10.8(월) ~ 11.30(화) 8주간 • 수정구: 늘푸른태권도체육관 (월·수·금 09:30~11:30) 25명 • 분당구: 까치태권도체육관 (화·목 10:00~12:00) 25명 • 대 상 : 관내 여성 누구나 • 신 청 : 9.10(월)~10.4(목) 선착순 홈페이지(www.lifesports.or.kr) 접수 성남시생활체육회 031-729-4803	서로사랑문해학교 2학기 수강생 모집 • 과정 : 초등 1~2학년, 초등 3~4학년 • 대상 : 배움 기회를 놓친 성인, 비문해자 • 교육내용 : 한글·수학 교육, 노래교실, 문화체험 • 접수기간 : 9월부터 수시 방문 접수 • 교육기간 : 9~12월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중앙동복지회관 031-747-9544	수정구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 자격 : 합창에 재능있는 만 20~55세 시 거주 여성 • 연습 : 화·목요일 10:30~12:30 • 활동 :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대회·행사 참가 수정구여성합창단장 010-3204-3419 수정구청 문화체육팀 031-729-5272	(주)시니어맘 베이비시터 참여자 모집 • 일시 : 2012년 10월 중 • 대상 : 육아경험 있는 50세 이상의 여성 • 내용 : 11월 초 30시간 교육 이수 후 취업 알선 (주)시니어맘 031-739-2964																					
2012년 여성들을 위한 행복한 인문학 여행 • 일 정 : 10.16 ~ 11.17(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성남시청 3층 모란관·산성누 리·율동관 • 후 원 : 성남시여성발전기금사업 ※ 인문학 강좌 기간 육아놀이방 운영	산재근로자 취업상담 • 분야 : 파출부, 건설인력, 철거전문, 경 비, 미화, 운전기사, 배달 등 • 접수 : 주민등록증과 이력서(사진 부착) 각 1부 지참해 방문 접수 두리인력파출, (주)두리잡 031-741-000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제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가 재직근로자, 과전근로자, 채용예정 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240%(대기업은 100%) 범위 내에서 훈 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031-750-6262	여성 단기 취업지원 프로그램 • 기간 : 10.8 ~ 10.10 • 대상 : 시에 주소를 둔 만54세 이하 여성 구직자 • 모집 : 10.4(목)까지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성남일자리센터 031-729-2858																					
<table><tr><th>날짜</th><th>제 목</th><th>강 사</th></tr><tr><td>10.16 (화)</td><td>"아이들이 놀아야 나라가 산다"</td><td>윤구병 (변산공동체 대표)</td></tr><tr><td>10.23 (화)</td><td>역사를 보는 눈과 노래 속에 담긴 역사</td><td>박준성 (작은책 편집위원)</td></tr><tr><td>10.30 (화)</td><td>생명, 가슴 두근거리는 삶으로</td><td>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td></tr><tr><td>11.6 (화)</td><td>농부 시인이 들려주는 생명이야기</td><td>서정홍 (시인)</td></tr><tr><td>11.13 (화)</td><td>공영방송을 말하다</td><td>이근행 피디 (MBC 노조위원장)</td></tr><tr><td>11.17 (토)</td><td>가장 슬픈 집 "가릴 수 없 는 진실을 말하다"</td><td>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대표)</td></tr></table> 분당여성회 031-702-9622	날짜	제 목	강 사	10.16 (화)	"아이들이 놀아야 나라가 산다"	윤구병 (변산공동체 대표)	10.23 (화)	역사를 보는 눈과 노래 속에 담긴 역사	박준성 (작은책 편집위원)	10.30 (화)	생명, 가슴 두근거리는 삶으로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11.6 (화)	농부 시인이 들려주는 생명이야기	서정홍 (시인)	11.13 (화)	공영방송을 말하다	이근행 피디 (MBC 노조위원장)	11.17 (토)	가장 슬픈 집 "가릴 수 없 는 진실을 말하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대표)	예금주들의 든든한 지킴이, 예금보험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 금융회사 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 고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 해드리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 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 1588-0037	노인장기요양시설 어르신 모집 • 대상 : 노인장기요양법령에 의한 등급 판정자(1등급, 2등급, 시설3등급) 로 65세 이상 성남시 1년 이상 거 주자(주민등록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우선 성남시노인보건센터 031-739-3013	디지털콘텐츠 실무자 무료 교육 • 과정 : 2차 앱 아이디어 도출 및 사업기획서 작성 • 기간 : 10.9~10.12 총4일(09:00~18:00) • 대상 : 관내 모바일, 게임기업 임직원 15명 내외 • 내용 : 마케팅 브랜드 및 신상품 개발, 핵심과제 도출, 내부역량 분석, 마케팅 믹스 및 경제성 분석 등 • 모집 : 10.8(월) 오후 5시까지 선착순 온라인(www.snventure.net) 접수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232
날짜	제 목	강 사																						
10.16 (화)	"아이들이 놀아야 나라가 산다"	윤구병 (변산공동체 대표)																						
10.23 (화)	역사를 보는 눈과 노래 속에 담긴 역사	박준성 (작은책 편집위원)																						
10.30 (화)	생명, 가슴 두근거리는 삶으로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11.6 (화)	농부 시인이 들려주는 생명이야기	서정홍 (시인)																						
11.13 (화)	공영방송을 말하다	이근행 피디 (MBC 노조위원장)																						
11.17 (토)	가장 슬픈 집 "가릴 수 없 는 진실을 말하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대표)																						
무료 직업상담 프로그램 ‘커리어디딤돌’ • 둘째주 : 10.8~12(5일 20시간) 09:30~13:30 • 넷째주 : 10.22~26(5일 20시간) 09:30~13:30 • 대 상 : 취업에 관심있는 경력단절 여 성, 미취업 여성 • 장 소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 신 청 : 전화나 이메일(ejkim333@ gg.go.kr)로 선착순 모집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031-899-9185, 9183	10월 정기 무료 영화상영 • 10.12(금) 오후 2시 ‘서울의 휴일’ - 1956년작, 감독 이용민, 출연배우 노능길·양미희·임성숙 • 10.26(금) 오후 2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 1961년작, 감독 신상옥, 출연배우 최은희·김진규·한은진 • 장소 :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지하1층 대강당 성남시노인보건센터 031-739-3013	2012 경기 안산 항공전 •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축제 - 항공기 100여대, 5개국 18개 에어쇼 프로그램 • 일시 : 10.3 ~ 10.7 • 장소 : 인천시 상록구 사동 1639 (경기테크노파크 앞) • 관람권 : 성인 5천원, 아동·청소년 3천 원(예매시 1천원 할인), 가족(성인 2명 + 아동·청소년 2명) 1만원 문의 031-407-6655 www.skyexpo.or.kr	- 선상 투표 안내문 -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최초로 선상 투표 실시 선상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12.11.21 ~ 11.25 (5일간) 선상부재자 투표 • 투표기간 : 2012.12.11 ~ 12.14(4일간) • 대상자 :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원 홈페이지 www.nec.go.kr/ship/ 성남시종원구선거관리위원회 031-756-1390																					

10.11(목)
성남시시니어여성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 일 시 : 10.11(목)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성남시민회관 대강당(구 성남시청). 무료 성남시여성합창단 단장 017-277-2151

10.11(목)
성남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명인전

- 일시 : 10.11(목) 오후 8시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입장료 : 전석 5천원
- 예매 : 성남아트센터 콜센터 1544-8117 성남시립국악단 031-729-4810

10.13(토)
한살림성남옹인 가을걷이 한마당

- 기간 : 10.13(토) 오후 1~5시
- 장소 : 성남시청 광장
- 프로그램 : 전래놀이, OX퀴즈, 솜씨장터, 가을걷이 장터 ‘생산자와 만나다’ (10% 할인판매) 한살림성남옹인 031-778-7778(내선 4번)

10.20(토)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시연회

- 일시 : 10.20(토) 오후 2시
- 장소 : 은행동 남한산성 놀이마당
- 내용 : 분당구 이매동의 향토 민속놀이 성남문화원 031-756-1082

10.13(토)
행복한 부자(父子)가 되는 경제교실

- 일정 : 10.13(토) 오전 10시 센터 시청각실
- 아빠와 함께하는 창업CEO체험, 우리아이 부자 만드는 경제습관
- 대상 : 시 거주 학령기 자녀 및 아버지 15쌍
- 신청 : 9.24(월)부터 온라인 선착순 마감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27(내선 2,3번)

10.17(수), 24(수), 31(수)
예비부부 대상 ‘달콤한 사랑의 레시피’

- 일정 : 10.17, 24, 31(수) 오후 7~9시(3회)
- 장소 : 센터 시청각실
- 성격유형검사, 사랑이 샘솟는 상호작용법, 핸드페인팅
- 신청 : 9.24(월)부터 온라인 선착순 마감
- 대상 : 예비부부 및 신혼기부부(결혼생활 2년 이내) 15쌍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www.family.go.kr → 참여마당 → 프로그램 참여신청)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27(내선 2,3번)

10.28(일)
2012 빈 소년 합창단 내한공연

- 일 시 : 10.28(일) 오후 5시
- 장 소 :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 입장권 : R석 4만원, S석 3만원 - 초등학교생(만7세) 이상 입장 가능
- 출 연 : 지휘 마늘로 까니, 빈소년합창단(안토브루크너팀) 성남문화재단 031-783-8000 www.snart.or.kr

분당구 2012년 4/4분기 시민 정보화 교육				
구분	교육일정	10.29 ~ 12.28(1기 3주 과정, 월~금요일)		
		오전 1반 10:00~12:00	오후 1반 13:00~15:00	오후 2반 15:30~17:30
13기	10.29 ~ 11.16	한글2007	소셜미디어	파워포인트2007
14기	11.19 ~ 12.7	오피스2007 기초	사진무미기	컴퓨터기초
15기	12.10 ~ 12.28	UCC제작	예쁜 문서꾸미기	인터넷활용
• 접수방법 : 10.24(수) 09:00~마감 시까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인터넷 실명제) ※ 컴퓨터기초 과목은 전화접수(031-729-7078)도 가능				

10·11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	구 분	자 격	교육 기간	교육 시간	접 수
수 정 구 청	엑셀(고급)	성남시민	11.5 ~ 11.30	월~금 10:00~12:00	10.15(월)~마감시까지 인터넷 접수 www.sujeong-gu.or.kr ☎031-729-5073
	스위시맥스(기초)			월~금 13:00~15:00	
	소셜네트워킹(고급)			월~금 15:30~17:30	
중 원 구 청	컴퓨터기초	성남시민	11.5 ~ 11.30	월~금 10:00~12:00	10.4(09:00)~선착순 중원구 홈페이지 www.jungwon-gu.or.kr 또는 방문접수 ☎031-729-6078
	한글반 이미지편집			월~금 13:00~15:00	
	자격증반(컴활2급)			월~목 18:30~20:30	
수 정 도 서 관	스위시맥스 활용 (중급)	성남 시민	11.6 ~ 11.29	화~금 10:00~11:30	10.23(화)~10.25(목) 09:00~ 선착순접수 방문, 홈페이지 접수 (http://sj.snlib.net) ☎031-743-9600(214)
	한글2007로 문서작성하기(중급)			화~금 13:30~15:00	
	PC 문제해결 캠퍼스			토 10:00~12:30	
중 원 도 서 관	멋내기~스위시(중급)	성남 시민	11.5 ~ 11.22	월~금 09:30~11:00	10.22(월)~10.24(수)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jw.snlib.net) ☎031-752-3916
	나도 그래픽디자이너			월~목 14:00~15:30	
	스위시맥스			토요일 09:30~12:00	
(사)성남시장애인정보문화협회	엑셀오피스	장애인 및 가족	11.10 ~ 12.22	토요일 13:00~15:30	수시 모집 ☎031-732-6884
	컴퓨터첫걸음			월~목 11:30~13:00	
	PC기초			3개월 (2개반)	
(사)성남시장애인정보문화협회	엑셀자격증반	장애인 및 가족	3개월	09:30~11:00	
	워드자격증반			11:00~12:30	
	인터넷			09:30~11:00	
	파워포인트			09:30~11:00	

※ 교육일정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에서 확인 가능

지역상권
살리기
캠페인

‘추석대목’을 기대하며...

35년 전통의 상대원시장에 가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송편이 딸각딸각 장단에 맞춰 기계 속을 빠져나와 떡판에 쌓여간다. 추석이면 평균 스무 가마의 쌀이 송편으로 빚어진다는 중원구 상대원시장 안 오복떡집(대표 이상기)의 풍경이다. 방앗간에서는 농부의 손을 갓 떠 나온 듯 보이는 붉은 고추와 참깨가 고운 가루로 내려지고 고소한 기름으로 짜내진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생각난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35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대원시장, 그곳에서 32년 동안 신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손웅일(평택신발) 씨는 “과거 이곳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곳이었다”며 “줄줄이 들어서는 대형마트의 영향도 있지만 똑같은 상품을 백화점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조길년(부흥상회) 씨 또한 “유명상품과 수입그릇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비자들의

발길은 대형마트로 향한다”고 아쉬워했다.



상대원시장에 가면 신선한 재료로 만든 100여 가지의 말끔한 반찬을 3팩, 5천원에 할인판매하며 갖가지 김치를 주문배달 해준다는 오복반찬(대표 이상희)이 있고, 맛으로 소문난 즉석어묵과 즉석두부, 생선, 정육, 야채를 비롯해 순대국밥과 곱창으로 유명한 식당골목 등 58개의 상가가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 ‘신나는 상대원시장 라디오 방송

국’에서는 상인과 소비자를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귀에 익은 음악을 전한다. 듣고 싶거나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상인에게 부탁하거나 전화(031-741-1250)로 신청하면 즉시 들을 수 있다.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둔 현재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비교해본 결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경우 약 24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 18만원이 소요돼 약 6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을 9월 28일까지 추석맞이 10% 할인판매(농협)한다. 상품권을 구입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면 올 차례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태풍과 폭우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가 들쭉이는 지금, 평소 듣고 싶었던 음악 몇 곡 생각해 두고 상대원시장으로 향해 보자. 넉넉한 상인들의 웃음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장을 보는 특별한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 취재에 협조해주신 오복떡집(031-735-9401), 부흥상회(031-742-1881), 춘천기름(031-742-1162), 오복반찬(031-747-9452), 평택신발(031-742-7697)에 감사드립니다.

상대원시장의 자세한
점포사진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추가사진



풍요로운 추석, 고향길 편안히 잘 다녀오시고 가족·이웃과 함께 넉넉하고 훈훈하게 보내세요